

작인한 4월을 이겨 낸 건강검진

은 상 구철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

재작년 4월, 나는 어쩌면 앓을 뻔 했던 나의 생명을 지켜 냈다. 이 모든 게 평소에 나의 건강과 생활을 염려해 주던 친구 명숙이 덕분이다.

“절화니? 요즘 몸은 좀 어때?”

명숙은 언제나 전화할 때 첫마디를 그렇게 물었다. 6년 전,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잘못 받은 탓에 전신 마비를 겪었고, 날마다 재활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겨우 의지없이 거동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니,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늘 먼저 그렇게 나의 건강을 확인하고서야 용건을 말하곤 한다.

“응, 좀 괜찮은 것 같애.”

다정하게 묻는 명숙의 말에 나의 대답은 언제나 똑 같다.

“그래도 이제는 제 발로 거동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우리 새천년을 맞아 건강진단 한 번 하러 가지 않을래?”

“별안간 웬 건강 진단?”

명숙의 제안은 뜻밖이었다. 연일 신문 방송에서 밀레니엄이니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으니 하니까 사람까지도 새로워지는 듯했다.

“나야 늘 병을 달고 병원을 제 집 드나들 듯 사는 처지 아니냐? 그러니 어디가 좀 이상해 보이면 의사가 어련히 일러 주지 않으려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무엇보다도 6년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에 또 어

디가 안 좋다면 괜한 신경거리가 하나 더 늘 것 같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이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 걸...”

“아냐, 그런 일은 생각이 났을 때 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 좋다는 게 뭐니? 그런데는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와 같이 가야 씩스럽지도 않고 부담도 덜한 거 아니냐?”

명숙은 내가 영 마음 내키지 않아 하니까, 그럼 자기 건강 진단 받으러 가는데 길동무도 안 해 주겠느냐고 생떼까지 썼다. 하는 수 없이, 그만 난 병원이 지겨우니 곁에서 구경만 하고 명숙이 너만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명숙은 그래도 좋다고 하였다. 좀 있으면 손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길동무 의지 없이는 행차를 못 하는 명숙이 우습기도 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명숙이가 우리 집으로 와서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지부에 같이 가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떤 계기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일까. 친구 명숙의 건강검진 이야기를 듣고 불현듯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일이 떠올랐다.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아이들 아빠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안색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얼굴도 거무스름해지는 듯했다. 일에 매달리다 보니 제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해서 그러려니

하고 사골을 고아 보기도 하고 보약을 달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남편은 건강검진을 좀 해 보고 싶다고 했다. 아마도 몸에 느끼는 이상 징후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았다. 가족을 위해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남편이 애처롭게까지 느껴졌다.

가까운 종합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가면서 별일이야 있겠는가 하는 마음과 피로를 느끼는 남편 걸이었지만 모처럼 포근함마저 느껴졌다.

그러나 검사 후 며칠 뒤, 우리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간암’을 선고 받았던 것이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남에게 해 될 일 한 적 없고, 내 욕심으로 법을 어긴 적도 없이 착하게만 살던 사람에게 이 무슨 번고란 말인가. 남편은 이미 때를 넘겨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버린 뒤였다.

하늘도 무심하다고 몇날 며칠을 땅을 치며 울었는지 모른다. 서른 일곱의 젊은 나이. 설마 암이 우리 부부를 위협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의사는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다.

아, 이미 틀렸단 말인가. 난 그 때 의사 앞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오히려 남편은 냉정하고도 차분하였던 것 같다. 결혼 생활 10년. 나의 행복은 이쯤에서 끝나는가 보다 하는 생각과

절부지 어린 것들과 살아갈 일도 막막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은 오허려 남아 있는 나를 더 염려했다. 곳곳하게 살아야 한다고. 간암 확진 이후에 남편은 다섯 달 남짓을 병상에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후 살 길이 막막했다. 남편 병치레 뒤에 남은 것은 월세방 뿐이었다.

나는 쿨은 일, 편한 일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살아간다는 것이 그토록 처절한 것인가. 밤이면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울기도 무척 울었다. 수없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어린 것들만 집에 두고 식당 일이며 남의 집 가게 일이며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내 집도 장만할 수 있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뒷바라지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여섯 해. 앞만 보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목뿔이 놀리는 듯 참기 어렵게 아픈 고통을 느꼈다. 병원에 가 보니 목 디스크라고 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영 목을 돌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혼자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기도 벅찬데 병까지 괴롭히는구나. 하지만 어쩌랴, 수술을 하는 수밖에. 그동안 집안은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돌볼 수 있겠다고 했다. 대견스러움에 한 걱정을 덜은 듯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목 디스크 수술 후 나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전신마비가 왔다고 했다. 뜻밖의 불상사가 일어난 모양이었다. 이대로 식물인간이 되는가.

박복한 년의 팔자는 왜 이리 꼬이기만 하는가. 의사는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어찌됐는가. 결자해지라는 말이 어느 때에 쓰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 경우가 그러하지 않

겠나 싶었다. 결국 재수술을 받고서야 주변을 의지하여 기동할 수 있었다. 그러기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다. 목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수술해야 한다는 말과 열혈 남짓이었던 장담은 나에게 목발과 꾸준한 물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로 변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의지가 있고 희망이 보일 때 생기는 마음인가. 나는 하루하루의 현실에 순응하며 그렇게 병과 친해져 갔다.

투병도 정성이어야 하고, 정성은 한결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반 년 가까운 시간을 내 몸을 위해 공들



이니, 이전 퇴원하여 집에서 통원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 어쩔든 다행이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 말이다.

‘간암’으로 남편 잃고, 목 디스크 앓다가 수술이 잘못되어 전신마비까지 겪고 나니, 그저 건강을 잃지 않는 일이 부귀 공명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12년 전. 지금과 같은 생각이었다면 남편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떠한 병이든 조기에 발견하기만 한다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던가.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했다는 시대에 남편의 병도 미리 발견만 했더라

면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내로서 제 남편을 보살피지 못한 괴로움이 크다.

건강검진. 그래 명숙은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다. 혼자 받기는 왠지 속스러워서 함께 검진받자고 했는데, 다정한 친구가 아니라면 누가 그러랴. 남편도 건강은 건강할 때 보살피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남편도 가족들만 보살피다가 정작 자신은 병마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


명숙이의 건강검진 이야기에 나는 온종일 ‘간암’으로 먼저 뜯 남편 생각과 남편에게 건강검진 한 번 챙겨주지 못한 불만함으로 괴로워했다. 명숙이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흔쾌히 대답하지 못한 데에는 남편에게도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 본 적이 없어 ‘간암’으로 세상을 뜨게 한 자책감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명숙이와 같은 친구의 제안이 없다면 나 혼자 건강검진 받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했을까.

‘그래 그러지 뭐. 검진 받고서 아무 이상 없다면 차라리 개운하지 않겠나.’

명숙의 전화를 받고 온종일 실타래처럼 헝클어졌던 생각들은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차분히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내일 아침 한 끼 거르고 명숙이 따라 건강검진이나 한 번 받아보지 뭐.’

낡은 사진첩을 꺼내서 남편의 옛날 얼굴을 보며 내일 건강검진 받고 오겠노라고 독백처럼 중얼거리며 생각을 접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이가 우리 집에 왔다. 명숙이는 나도 건강검진 받을 것이라는 말에 어린 아이 추켜 주듯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